

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을 이용한 치근 피개의 임상증례

김수현*, 장범석, 엄홍식

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임상연구 및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부착 치은의 존재 및 치은의 폭이 치은 건강과 치주 조직의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한다. 그러나, 심미적인 요구와 치근 지각과민, 치근 우식 및 치경부 마모의 처치, 치태 조절을 위한 변연 조직의 외형 변화를 위해서 치근 피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.

노출된 치근의 피개 방법으로는 coronally repositioned flap, free gingival graft,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및 guided tissue regeneration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 술식 모두가 치은퇴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. 특히,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은 이식편의 양면에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치근 피개의 성공률이 높으며, 공여부의 창면이 작아 환자의 동통과 불편감이 적고, 주위 조직과의 색조 차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.

본 증례에서는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을 이용한 치근 피개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치근 과민 및 심미적 이유로 치은 퇴축의 처치를 원하는 9명의 환자(Miller's classification에서 class I: 6명, class II: 1명 class III: 2명)에서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을 시행하고 술후(1주-7개월) 치근 과민의 해소 여부 및 치근 피개 정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였다.

연구 결과

Miller's classification으로 분류하였을 때 Class I의 경우대부분의 증례에서(1 case 제외) 술후 연조직 변연이 CEJ에 존재하며, 치근에 대해 임상적 부착이 있고, 열구의 깊이가 2mm 미만이며 BOP도 없다는 것을 관찰하여 완전한 치근 피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Class III의 경우 부분적인 치근 피개만을 얻을 수 있었다.

결론

적절한 적응증에 사용한 경우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을 통한 치근면 피개술은 예지성 높은 술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